

강진군 영농기술지원단, 현장 누비며 농업인과 소통한다

농업현장 방문...문제 해결·기술 지원 진행 '호평' "적기 영농 차질 없도록 6월 말까지 활동 지속"

강진군이 본격적인 영농철에 접어들면서 이른 아침 시간을 이용한 '영농기술지원단'을 운영하여 농가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영농기술지원단은 매년 농번기 영농시간대에 맞춰 농업 현장을 찾아다니면서 영농 문제의 신속한 해결과 함께 농업인 상담, 의견 교환을 통해 농

가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 올해 상반기 운영은 당초 4월 말부터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기후 온난화로 영농시기가 앞당겨짐에 따라 10여 일 일찍 활동에 들어갔다. 지원단은 작목별 영농기를 감안하여 쌀귀리 등 맥류 재배포장, 벼 육묘 관리와 조기재배, 마늘·양파 재배포

장 막바지 비배관리, 시설딸기 육묘 및 후기 수확 관리에 중점을 두고 추진한다. 특히, 농촌지도 경력이 풍부한 분야별 전문지도사와 읍·면 상담소장이 함께 방문해 현장 해결이 어려운 사항에 대해서는 작물이나 토양시료를 직접 채취하고, 농업기술센터 내 장비를 이용한 정밀 분석 후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지난 27일에는 강진읍 일원 쌀귀리 재배단지, 시설 고추, 조생종 벼, 딸기 재배 농가를 방문하여 생육상황 점검, 포장관리, 병해충 방제 요령에 대한

기술지도도 실시했다. 이 자리에서 지원단은 쌀귀리 등 맥류의 경우 동절기 이상 고온과 잦은 강우로 이삭 패는 시기가 예년보다 빨라져 붉은곰팡이병 등 각종 병해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철저한 예찰과 방제를 당부했다. 김춘기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코로나19 여파로 각종 농업인 교육과 현장 지도 활동에 어려움이 있지만,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를 통해 농업인 기술지원과 농업현장 문제 해결에 나서고 있다"면서 "적기 영농에 차질 없도록 6월 말까지 영농기술지원 활동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진=김영일기자



진도군, 선진농협 미곡 처리장(RPC) 준공

사업비 30억 투입 최신식 시설로 연간 9,000t 쌀 가공 처리...진도쌀 고급화 기반 마련

진도군은 고품질 쌀을 생산할 수 있는 선진농협 미곡종합처리장(RPC) 시설 공사를 완료하고 최근 준공식을 가졌다. 진도 선진농협과 함께 건립한 이 RPC는 총사업비 30억원 투입, 벼 수확 후 건조와 도정 검사 등이 가능한 시설로 구축됐다. 이날 준공식에는 이동진 진도군수를 비롯해 군의원, 관련 단체장, 농업인, 조합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미곡종합처리장은 총 부지면적 1만

7,960㎡, 건축면적 6,297㎡에 고품질 쌀브랜드 육성 가공시설과 벼건조저장시설 등 최신시설로 이뤄져 고품질 쌀 생산체계 구축과 농가편익을 위한 건조·저장 시설로 자리 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자동적재와 자동계량포장, 수확관리시스템 등 현대화 가공시설로 연간 9,000t의 쌀 가공 처리 능력을 갖춰 진도 쌀 고급화 기반을 마련했다. 미곡종합처리장(RPC)은 벼를 수확한 후 건조, 저장, 도정, 검사, 판매 등

의 모든 제반과정을 개별농가 단위가 아닌 대단위 자동화과정으로 일괄 처리하는 시설이다. 이동진 진도군수는 "아무리 좋은 쌀을 생산해도 도정공장, 저장장치가 좋지 않으면 좋은 쌀을 생산할 수 없다"며 "미곡종합처리장이 진도군 쌀 산업의 핵심시설로 자리매김해 진도 쌀이 전남 10대 브랜드로 인정받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진도=조상용기자

장흥군 "지방세 환급금 찾아가세요"

장흥군은 지방세 미환급금을 납세자에게 돌려준다. 군은 27일 자동차제 연납 후 폐차 및 소유권 이전, 국세 경정에 따

른 세액 변경 등의 사유로 발생한 지방세 환급금을 일제정리를 통해 다음달 31일까지 납세자가 돌려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환급을 안

내할 예정이다. 지방세 환급금 일제정리 대상은 3월말 기준 264건, 7,340천 원으로 파악됐다. 환급금 조회 및 신청은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나 군청 재무과 접수팀으로 방문 또는 전화 신청을 하면 된다. 장흥=김도영기자

완도 해조류 우수성 미국에서 주목받다 이산화탄소 흡수 탁월...몸속 중금속 배출 등 효과 뛰어나

4월 24일 중앙일보 기사에 미국 항공우주국(NASA)이 인공위성에 포착한 완도군 해조류 양식장 인공위성 사진을 소개해 화제가 되고 있다. 사진은 지구의 모습을 소개하는 지구전망대(Earth Observatory)라는 사이트를 통해 공개됐다. 미국 항공우주국에서는 "지난 2월 19일, 완도군의 해조류 양식장 인공위성 사진을 촬영했으며, 섬과 섬 사이의 만(灣), 좁은 해협 등지에 양식장이 빼곡하게 들어차 선명하게 잘 보였

다"고 밝혔다. 인공위성 사진은 음영과 색조가 분리되어 수심을 더 자세히 볼 수 있고, 밝고 어두운 톤이 수심을 반영해 어두울수록 깊으며, 해안가는 담수 유입 등이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완도는 따뜻한 기온과 완만한 조수차로 다시마와 김, 미역을 양식하기에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언급했다. 해조류는 부표가 달린 굵은 밧줄에서 양식하는데, 만조 시 수면 가까이 에 떠올라 해조류가 햇빛을 충분히 받

고 자랄 수 있도록 하고, 썰물에는 바다에 닿지 않도록 하는 양식 방법에도 주목했다. 해조류는 광합성을 통해 대기 중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데, 해양 생태계는 육상 산림보다 온실가스 흡수 속도가 최대 50배 빠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우리나라 해조류의 우수성, 특히 완도의 친환경 해조류 양식, 해조류의 가치에 주목한 점은 매우 큰 의미가 있다"며, "2022 완도국제해조류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해 해조류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알리고, 해조류산업의 발전을 이끌겠다"고 말했다. 완도=이민혁기자

해남군, 대한민국 공공PR대상 SNS 최우수상 수상

'여기가 홍보맛집 해남군' 주제 SNS 통한 군정 홍보 사례 발표

해남군이 한국광고홍보학회(회장 김정현)가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한 '2020 대한민국 공공PR대상' SNS 분야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 공공PR대상은 한국광고홍보학회가 전국 광역 및 지방자치단체 중 우수 PR사례를 선정하고 시상하는 국내 홍보분야의 가장 권위 있는 상으로 올해로 5회째를 맞았다. 특히 해남군은 군 단위 지자체로는 유일하게 결선에 올라 군민의 정보접근성 향상 및 편의증대를 테마로 한 '여기가 홍보맛집 해남군'을 주제로 SNS를 통한 군정 홍보 사례를 발표했다.

해남군은 농가가 직접 참여한 콘텐츠부터 전남 최대 부수의 발행하는 땅끝해남소식지를 활용해 노령층 맞춤형 홍보를 펼치는 등 농어촌 지역 특성을 살린 다양한 SNS 활동이 좋은 평가를 얻었다. 또한 강, 주리주라, 범내려온다 등 트렌드 영상과 정책을 접목한 콘텐츠를 공무원이 직접 출연, 제작하면서 군민에게 정책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많은 관심을 모으기도 했다. 해남군은 지난해 제2회 해남미남축제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결합된 스마트 축제로 개최한데 이어 올해 유튜브 채널을 활용한 땅끝매화축제, 흑석산철쭉제 등도 온라인으로 개최해 코



로나19 시대에 부합하는 다양한 비대면 프로그램을 선보이고 있기도 하다. 명현관 군수는 "코로나 이후 SNS를 통한 군민소통에 중점을 두고, 다양한 콘텐츠 확대로 군민들이 군정에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해남군 특성에 맞는 군민소통 방안을 마련해 군민들과 함께 열린 군정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기동취재본부

만나서 영광입니다!
영광의 청정자연과 어우러져 탄생한 건강한 우리 식품을 만나보세요